

월요객석



정만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斷想

장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국민의 관심도 거의 없었다. 선수들은 의성여고 방과 후 특별수업을 통해 컬링을 배웠다. 공교롭게도 선수들은 모두 같은 김씨이고, 친자매, 친구사이이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한술밥을 먹으며 꾸준히 컬링을 연습하면서 탄탄한 팀워크를 다져왔다. 외신들도 극찬했다. 뉴욕타임즈는 의성이 마늘의 고장이라 '갈릭 걸스'라는 애칭을 붙여줬고, 경기 내내 외마디 외침 '영미'라는 소통 방식이 주목을 받았다.

또 하나의 감동 드라마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남자 매스스타트 경기였다. 한국팀 막내 정재원의 희생이 백전노장 이승훈의 값진 금메달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승훈의 지치지 않는 체력과 무서운 뒷심이 있었다. 매스스타트는 선수들이 정해진 라인 없이 트랙을 16바퀴를 돈 후 포인트를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이승훈은 초반 후미에서 페이스를 조절하며 기회를 엿봤다. 이 가운데 정재원이 2위 그룹의 선두를 유지하며 다른 선수들의 힘을 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다. 마지막에 힘이 빠져버린 정재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재원도 메달의 욕심을 가질 만하지만 그는 네덜란드 스펀 크라머처럼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었다. 크라머의 도움을 받은 페르베이는 동메달에 그쳤다. 이승훈은 레이스가 끝난 뒤 대표팀 막내 정재원과 손을 잡고 번쩍 들어올렸다. 또한 경기 직후 가진 인터뷰에

서 이승훈은 "같이 레이스를 해 준 정재원이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정재원은 "제 레이스가 우리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기쁘고, 우리 팀 승훈이 형이 금메달을 땀다는게 너무 기쁘다"며 소감을 말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결승전을 통과한 이상화 선수가 흘린 눈물은 우리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줬다. 관중들은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는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선을 다했으니 격려해달라"고 한 그의 말처럼 그가 흘린 눈물은 감동의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메달 색깔보다 이상화 선수가 탐험하며 노력했던 시간을 높게 평가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숙적 고다이라 나오 선수와 포옹하고 함께 경기장을 돌며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돋보였다. 소통에 기반한 두 사람의 멋진 경쟁과 아름다운 우정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이제는 가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대다. 어느 때 보다 감성적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선수들의 메달 성적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국민들은 성적에 개의치 않고 행복감을 느꼈을 것이다.

한국은 하계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삼수 끝에 유치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국가가 됐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온기(溫氣)를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社 說

공기업은 세대 교체중...젊은 문화로 변화 필요하다

철밥통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공기업이 젊은 세대의 입사가 늘고 일과 삶 균형 찾기가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예전에 겪지 못했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공공기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원인을 찾자면 빠른 세대교체다. 올해는 베이비붐 1세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1958년생이 정년을 맞아 회사를 떠난다. 59·60년생까지, 산업화를 이끌고 조직을 주름 잡았던 세대가 퇴직을 눈앞에 두면서 그 자리를 20~30대가 메우고 있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입사 1~5년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력의 20%를 훌쩍 넘겨 30%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일부 지방 사업장의 경우 50% 이상이 입사 5년차 이내가 차지하는 곳도 있다. 이렇다 보니 문화적 세대차이 때문에 갈등이 폭발하는 곳도 있고,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문화가 생기는 곳도 있다. 이는 세대교체 과정에서 겪는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요즘세대들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승진에 대한 갈망보다는 여유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크면서 밤낮으로 직장과 상사에 충성하며 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력 공기업의 경우 회식자리에서 빠지지 않던 '잔돌리기 문화' 같은 관습이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예고 없이 '오늘 한잔'을 권하던 회식 문화는 지양하는 대신 사전에 회

식 일정을 공지한다. 또 회식하면 따라붙던 저녁 술자리 대신 맛집 탐방을 하거나 연극, 영화 관람과 같은 문화 회식을 통해 직원들과 어울린다. 이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듣는 소리가 '꼰대'다.

현재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은 문화적 충격이라기 보다는 세대교체 과정에서 겪는 환경의 변화이며,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기업들은 세대교체에 따른 사무실 내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신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를 얼마나 잘 만들어 내놓느냐가 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요즘의 기업 문화는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튀지 않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기존의 집단중심 사고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않은 방식으로 얘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내에도 무조건 집단을 우선으로 하던 무언의 관습이나 규칙들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로 보면 된다.

'워라밸'로 대표되는 요즘의 직장 문화 현상은 공기업들이 흘러 들으면 안된다. 요즘 익명제도 사이트인 블라인드앤을 보면 자기가 소속된 조직에 대한 불만의 글이 가득하다고 한다. 이런 내부의 불만을 없앨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신세대 공기업의 우선 과제다.

경제산책

청년실업과 저출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청년세대만이 당면한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미래 성장을 좌우할 국가적 차원의 사안이라는 점도 정답일 수 있지만, 두 문제는 현재까지 '백약이 무효'라는 점에서 답이 있다.

그간 정부가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오는 2021년까지 예코봄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청년취업난에는 빨간불 하나가 더 켜졌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 126조 원을 투입한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7700명으로 처음 3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5로 역대 최저로 곤두박질했다. 이 추세라면 인구

과 저출산은 서로 맞닿아 있는 청년문제로, 이를 해결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년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는 만혼과 비혼은 높은 청년실업률과 낮은 여성고용률, 높은 주거비 등 직접적 요인들에 기인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정점 도달시기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대책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부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최근 구조적 문제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 청년실업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저출산 등 청년문제를 푸는 첫 단추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5일 정부가 발표하는 '청년 일자리대책'이 중요하다. 이번 정부대책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묘약이 되길 기대해본다.

조재학 기자 jh@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for JeonGinShinMun (전기신문), including websit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 ◆ 공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 빠르고 안전하게 회사를 인수받고 싶으십니까
◆ 면허 양도 후 공법인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 회사를 제대로 평가받고 매도하고 싶으십니까

공사업 양도양수 전문!

- 양도양수, 법인전환, 분할합병, 신규등록,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1:1 맞춤 출장 상담 가능 ☎ 010-5268-4436"

(주)건설뱅크 http://www.cbank.co.kr

서울본사 TEL 02-567-8986 FAX 02-567-3453
경남지사 TEL 055-763-6677 FAX 055-763-6678

(주)유진M&A

-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분할, 합병, 신규등록
·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 기업진단
·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 일반, 전문건설업 신규 매매 정리 문의 환영

TEL. 02-555-5887 FAX. 02-557-8003 www.umna.co.kr

계측기 및 1, 2종 전설법정공구 소방면허 시설감리 전기 건축감리 장비 전문

Grid of images showing various electrical testing and construction tools with their specifications and prices.

YOKOGAWA MIZUMI (주)현대전기계측기
www.hdj.com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TEL. (02)2279-0427, 2278-3944
FAX. (02)2273-8758